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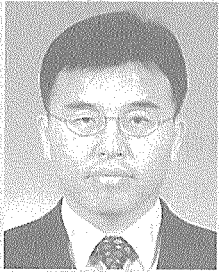


## FTA 왜 필요한가

당사국간 상품 및 서비스 이동의 장벽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무역거래가 새롭게 '창출' 되고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던 것을 수입가격이 싸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무역전환' 효과도 나타난다.

자유무역협정(FTA)은 몇몇 국가간에 관세와 비관세 등 무역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한 나라 안에서 이뤄지는 것처럼 거래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다. 당사국간 상품 및 서비스 이동의 장벽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무역거래가 새롭게 '창출' 되고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던 것을 수입가격이 싸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무역전환' 효과도 나타난다.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돼 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값싸게 소비할 수 있어 후생이 증대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물론 값이 싸진 수입상품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공급자는 단기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히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산업의 종사자는 수입자유화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 산업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에서 이를 능가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국가전체로 볼 때 FTA체



온 기 윤  
(매일경제신문사  
경제학박사)

이라크 전쟁종료후로도 미국은 싱가포르 등 관계국과의 FTA체결을 통해 통상무대에서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결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소득 배분배 등을 통해 FTA체결로 피해를 입은 집단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하는 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144개국이 참가하는 도하개발어젠더(DDA)라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 추진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마다 FTA체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일찍이 멕시코 및 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체결한 바 있는 미국은 2005년 출범을 목표로 전 미주국가를 포함하는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종료후로도 미국은 싱가포르 등 관계국과의 FTA체결을 통해 통상무대에서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데 이어 한국, 뉴질랜드 등 주변국들과의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아세안과 2010년까지 FTA를 출범시키기로 이미 합의해 놓고 있다.

한국은 아직 FTA를 한 건도 공식 체결하지 못했다. 칠레와는 올 2월 정부간 서명은 마쳤으나 국회비준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일본과는 연구단계에 머물고 있는 정도다. 세계무역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무역대국이 세계 무역자유화 협정에서 국제 외톨이 신세가 돼 있다. 국가간 FTA는 여러 집단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득실을 철저히 따지되 득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99년 협상개시 이후 오랜동안 검토 끝에 득이 될것으로 판단돼 정부간 서명까지 마친 한·칠레 FTA는 이 점에서 국회의 조속한 비준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FTA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하

고 가을 정기국회로 넘겼다. 표에 급급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비준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니 한심하기까지 하다. FTA 체결시 과실 등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것을 우려한 농민과 관련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서명이 이뤄지게 된 협정이 이번에는 국회 비준을 얻지 못해 낙담을 자고 있는 것이다.

칠레 정부는 FTA 국회비준안을 최근 의회에 제출했으며 상하 양원이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원하고 있어 조만간 비준이 무리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하니 우리와 대조적이다.

한국은 공산품 수출대국이고, 칠레는 농산물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로 한국에 비해 수출 규모가 작다. 이는 FTA 체결시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그간 협상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칠레산 과실 중 사과와 배는 수입자유화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으며, 포도는 자유화하기로 했으나 우리의 생산량이 적은 겨울철에 계절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입개방의 충격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오히려 우리의 경우 승용차, 휴대전화 등 대(對)칠레 수출 상위 공산품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돼 적지 않은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특히 칠레는 16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이므로 간접효과까지 고려하면 우리의 무역 이익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을 정기국회 때는 꼭 비준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계속 늦어질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 처리가 지연될수록 통상 신뢰가 떨어 짐은 물론 국익에도 부정적 효과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